

보도자료 2012. 4. 19.	 <div>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div>	
	담당부서	국제심의회관실
	담당자	국제심의회관 진상훈 (☎ 3480-1969)
	공보관실 ☎ 3480-1451	

한-페루, 사법협력 양해각서 체결

■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2. 4. 20. 17:00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틴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판례·법령·사법통계 등 사법정보의 교환 및 상호 방문단 파견 시 업무 협조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페루 대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1. 개요

-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2. 4. 20.(금) 17:00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틴(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페루 대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한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희망하였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임

- 한국 사법부가 외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양해각서)을 체결한 것은 2004년 일본, 2005년 러시아, 2006년 중국에 이어 네 번째임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이번 양해각서는 두 나라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방문단 파견 사업 협조와 상대국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판례·법령·사법통계의 교환 등 향후 두 나라간 사법교류·협력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 대법원은 사법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함
 - 양국 대법원은 사전 협의 하에 각기 자국의 판결례와 법령, 사법통계에 관한 간행물을 교환함
 - 양국 대법원은 사법제도의 운영 및 자국의 재판 제도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는 등 사법정보 교환에 상호 협력함
 - 양국 대법원은 사법정보 수집을 위하여 방문한 상대방 국가의 법관 및 법원 직원을 환영하며 필요한 충분한 협조를 제공함
-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사법부 간에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될 것으로 기대됨